

# 구석기 유적을 동화로 엮은 외서초 아이들

목포공공도서관,  
오디오북 서비스 제공

## 졸업식장서 '월평탐사대2' 출간 발표

### 시골 살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목적

순천 외서초등학교 학생들이 2월 13일 졸업장 수여식에서 직접 출간한 동화책 '유적을 지켜라! 월평탐사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유적을 지켜라! 월평탐사대'는 이 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학교 인근 외서면 월평리에 있는 국가사적 제458호 월평 구석기 유적지를 배경으로 창작한 동화책이다.

학생들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월평 유적지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했다. 이에 학생들은 유적지 훼손을 막고 보존해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유적을 지켜라! 월평탐사대2'라는 동화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번 책은 '유적을 지켜라! 월평탐사대1'의 후속작품이다. '월평탐사대1'은 현대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 체험하는 내용이다. 이어 쓴 월평탐사대2는 구석기인들이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내용으

로 씌어졌다.

1년 동안 소재 선정부터 글쓰기, 삽화그리기, 편집까지의 모든 과정을 외서초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역할을 나눠 완성해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발표하는 공동활동으로 이야기 개요를 만들고 글 소재를 정했다. 이후 2명씩 짝을 이뤄 각 장을 맡아서 글을 썼다. 또한 삽화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모두 참여해 동화의 내용에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려냈다.

시골의 작은 학교인 외서초는 이번 동화책 출판 뿐 아니라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역사교육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글로벌



체험학습, 큐레이팅 전시회 활동, 구석기를 주제로 한 오케스트라 연주활동, 구석기 관련 월평트레킹 체험활동 등이 그것이다.

장용철 교장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공공도서관이 귀로 듣는 책 '오디오북 키오스크'를 설치해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독서환경을 제공한다.

'오디오북 키오스크'는 다양한 주제의 오디오북 콘텐츠를 휴대전화에 자유롭게 내려받아 독서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스마트폰 전용앱 '오디언 렌즈'를 다운받아 키오스크에서 원하는 오디오북을 선택한 후 쿼일(QR)코드를 스캔해 이용하면 된다.

현재 오디오북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콘텐츠는 총 3,001종이며 앞으로도 인문, 역사, 문학, 자기계발, 건강, 어학 등 다양한 주제의 오디오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오철복 관장은 "오디오북 서비스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과 책 읽기 힘든 어르신,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독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광주학생교육회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2020년 상반기 어린이실 프로그램' 및 '영어 독서프로그램 가족영어동화읽기'를 운영한다.

오는 3월20일부터 6월13일까지 운영되는 '2020년 상반기 어린이실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독서 및 독후 활동을 통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남남 책 먹는 아이들', '도서관 체험교실', '그림책 속 마음놀이' 등 3개 강좌로 구성되며 각 강좌별로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유아기(5~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영어 독서프로그램 가족영어동화읽기'는 가족이 함께 영어 도서를 읽으로써 유아들이 영어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조기 영어 독서 습관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워크북 활동 및 독서토론활동이다.

고흥=위지훈 기자

## 전남교육청 '공유설비에약시스템' 개통

### 통학차 배차·Wee센터 상담 등 업무 경감 기대

전남도교육청이 통학차량 배차, Wee센터 상담 예약 등을 통합한 '온라인 공유설비에약시스템'을 오는 3월 1일부터 개통한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일선 학교 및 기관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통학차량 배차 신청과 Wee센터

상담 및 교육지원청 회의실 예약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 공연 관람, 각종 대회 참석 등을 위한 통학차량 배차 신청을 할 때 매번 공문을 작성해야 하고, 차량 배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신청 절차와 배차 과정이 간편해졌다. 또한 통학차량 배차나, 회의실·Wee센터 상담 예약 과정에서 행사의 중요도 고려 없이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통학차량 배차 시스템은 전남 22개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구축된다. 공문 생산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에서 매

달 20~25일 사이에 다음 달 배차를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수합해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년여 간 학교 교직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통학차량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나주, 무안과 해남 교육지원청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해 오류를 개선하고 운영상 노하우도

확보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오는 3월 전편 구축되는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성공적 안착과 추진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명식 행정과장은 "우리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공유설비에약 시스템 개통으로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 광주중앙도서관·분관, '토요일 친구, 도서관!' 수강생 모집

광주중앙도서관이 3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일 친구, 도서관!'을 운영한다.

'토요일 친구, 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며 인문·과학·예술·독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룬다.

광주중앙도서관은 2월25일부터 3월12일까지(분관 석봉도서관은 3월2일부터 3월13일까지)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평생교육-교육수강신청)를 통해 '토요일 친구, 도서관!'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광주중앙도서관의 '토요일 친구, 도서관!'은 ▲에디슨 과학실험(15명)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인문동화(15명) ▲연극 놀이터(15명) 등 3개 강좌로 구성되고,



분관 석봉도서관의 '토요일 친구, 도서관!'은 ▲장의력 광광 미술교실(15명) ▲두뇌개발 보드게임(15명) ▲생각 속속 과학실험(15명) 등 3개 강좌로 구성된다.

광주중앙도서관의 '연극 놀이터'와 분관 석봉도서관의 '두뇌개발 보드게임'은 올해 신설된 강좌이다. 특히 '연극 놀이터'는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흔치 않은 공연예술 분야의 강좌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 어르신들의 꿈을 이뤄준 고흥평생교육관

전남고흥평생교육관은 최근 제7회 초등 및 제4회 중학 학력인정서 및 졸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졸업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졸업생 22명 및 강사 등 4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초등학력인정 졸업식은 2012년도에 초등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후 올해 16명을 포함 총 1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4회째를 맞이한 중학학력인정 졸업식은 전남에서 최초로 2014년도에 중학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 6명을 포함 총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특히, 중학학력인정을 받은 졸업생 중 3명은 더 큰 배움의 길을 걷고자 정구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또 다른 꿈을 펼치며 배움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최고령자 이종심(84세) 초등 졸업생은 "꿈에도 그리던 졸업장을 받아서 기쁘다.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늦은 나이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당히 배우러 오라."고 말했다.

이재준 관장은 "가족과 친지들의 축하 속에서 성대하게 졸업식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교육과정을 마쳐신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고흥평생교육관은 어르신들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과정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위지훈 기자

